



영화 '사냥'서 동근·명근 쌍둥이 역 조진웅

배우 '조진웅'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이 드라마 '시그널'의 '이재한 형사'를 떠올릴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형사 '이재한'이 역할로 조진웅은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지만, 그는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기더라도 착하고 멋진 캐릭터만으로 자신의 연기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그널을 찍을 때 식당에 갔는데 주인아저씨께서 '앞으로 악역은 하지 마'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악역도 매력적일 수 있어요. 앞으로 극에 필요한 악역이 있다면 (마다치 않고) 할 생각이예요."

지난달 29일 개봉한 영화 '사냥'은 시그널 전에 찍은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조진웅은 금맥을 발견한 후 극단으로 치닫는 정체불명의 형사 '동근'과 그가 금맥을 찾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쌍둥이 형제 '명근' 역을 맡았다.

'동근'과 '명근'은 금을 찾는 그들에게 방해되는 마을 사냥꾼 '기성'과 조금은 모자라지만 순수한 소녀 '양순'을 죽이려고 하는 악역이다.

조진웅은 "'동근'은 원래 (전형적인) 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다"며 "그러나 산에 올라가 금을 발견하고 맹목적으로 쫓으면서 점점 변모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조진웅은 술과 사람을 좋아한다. 그의 이런 성격은 산속 촬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촬영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만 접고 한잔합시다'라고 제안했어요.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 현장에서 다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땐 한잔 마시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죠."

촬영 현장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도 넘쳐났다.

경기도 파주의 촬영장 인근 한 백숙집에 매일같이 들러 늦게까지 화식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주인이 조진웅 일행에게 열쇠를 맡기고 먼저 퇴근한 사연부터 식당에서 계속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지겨울까 봐 메뉴에 없는 요리를 만들어준 이야기, '명실장' 역의 소속사 후배 배우 권율에게 물레카메라를 한 일까지...

그가 털어놓는 에피소드 속에는 동료에 대한 다소 짓궂으면서도 투박한, 하지만 진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조진웅은 요즘 미국 인기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안투라지'를 한창 촬영 중이다.

안투라지는 스타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낸 블랙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다. 여기서 조진웅은 연예기획사 대표 역을 맡았다. 그는 연예기획사 대표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오버랩됐다고 털어놓았다.

"배우가 자신이 본 오디션 결과에 대해 물어보자 기획사 대표가 차마 떨어졌다는 말을 못하고 '그 작품은 별로니까 하지 말자'고 둘러대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대표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예요."

심지어 웬만한 대한민국 감독이라면 한 번씩은 자신을 거절할 경험이 있을 정도라는 것.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그가 단역에서 조연, 조연에서 주연으로 차근차근 올라가 대중이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났다.

"(말이진 인기에) 책임감을 더 크게 느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배우를 꿈꿀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연기를 지망하는 한 학생에게 '당신처럼 되고 싶다'는 팬레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금은 무거움을 느꼈죠. 지금은 그런 무거움을 넘어 조금 더 당당히 (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해요."

조진웅은 요즘 미국 인기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차츰마 패밀리' 육지에서도 통했다

tvN '삼시세끼 고창편' 첫회 11.6% 기록

'차츰마'의 위력은 섬에서나 육지에서나 변함이 없었다. '차츰마' 차승원을 내세운 tvN '삼시세끼 고창편'이 지난 1일 첫회에서 11.6%를 기록하며 단숨에 시청률 10%를 넘어섰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4%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선보인 '삼시세끼 만재도' 1편의 첫회 시청률은 9.8%, 2편의 첫회 시청률은 13.9%였다. 고창편도 첫회에서 10%를 넘어지면서 '차츰마'를 내세운 '삼시세끼'는 3타석 연속 흥행 기록을 세웠다.

1일 밤 9시45분부터 방송된 '삼시세끼 고창편'은 케이블 동시간대 1위는 물론이고, 지상파도 위협했다. 비슷한 시간 방송된 SBS TV '정글의 법칙 인 뉴칼레도니아'가 12.2%를 기록하며 근소한 차이로 '삼시세끼 고창편'을 눌렀다. 그러나 MBC TV '듀엣가요제'는 6.9%, KBS 2TV '어서옵쇼'는 4.7%로 상대가 되지 못했다.

만재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물으로 상륙한 '차츰마 패밀리'는 이날 전북 고창에 집을 풀고 비빔국수와 닭볶음, 우렁 된장찌개 등을 예전과 다름없이 똑딱 선보였다.

고창편에서는 손호준(32)보다 10살 어린 모델 출신 배우 남주혁(22)이 새로운 멤버로 합류해 여가지기 뛰어나며 막내 노릇을 톡톡히 했다. 또 영화 촬영 스케줄로 이번에는 출연하지 못할 줄 알았던 유해진이 방송 말미 뒤늦게 합류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고창편 4명의 멤버를 완성했다.

외딴섬 만재도와 비교해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리한 고창이지만 차승원은 제작진의 눈총을 피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믹서기를 요리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차츰마 패밀리'가 편하게 지내는 것을 응원할 수 없는 제작진은 이들에게 재료비를 기불해준 뒤 농사를 해서 돈을 갚으라는 임무를 내렸다.

한편, 이날 밤 11시대 방송된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7.6%, MBC TV '나혼자 산다'는 6.4%, SBS TV '웃찾사'는 3.6%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숙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스쿨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 45 기쁜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재)	00 이웃집 찰스(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재)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열린공간 토크 talk(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크 특선 (방송의 진실)(재) 55 감성애니 하루(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녹화중계 국회 대정부 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서 이런일이(재)
3	55 토티생활체조	00 자동차공학식 위기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목?키즈스쿨 55 깨침원(재)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55 감성애니 하루(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세계	0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전문농부도 살아리(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향안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권철아 관찰자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라이보 토크 부모 (내 아이의 습관)	14:00 미술탐험대
05:30 건강한 아침	10:30 한국기행 (재)	14:30 부릉부릉 부름미즈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보일러로 에너지 절약을 주도하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산림용 보일러 관리 성공호)	15:00 모피와 친구들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정진주의 서러대 자비와 우영 오이 무침)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10 세계사 시간여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	11:40 한국기행(재)	15:20 피터 래빗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5:35 꼬마기사 마이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시대공감 <스토리 그곳>	15:50 으랏차차 아이큐
08:00 덩동명 유치원 1~3	12:40 지식채널 e	16:00 캐니멀(재)
08:45 코코코 다큐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30 코코코 다큐
09:00 캐니멀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6:45 덩동명 유치원 1~3(재)
09:30 원더볼츠	13:50 원더볼츠(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백주부도 반한 노이이 씨국수>
		20:50 세계테마기행 <대륙의 뜨거운 심장, 후베이성 1부 청장의 무릉도원을 찾아서>
		21:30 한국기행 <그해, 오지의 여름 1부 집으로 가는 길>
		21:50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의 비밀>
		22:45 달려졌어요
		23:35 시대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4일(음 6월 1일 丁亥)
子	48년생 소망했던 바를 이루리라. 60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할 시기이므로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72년생 억지로라도 실행해야 한다. 84년생 대체로 양호한 형태를 띠겠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7, 47	42년생 위험 요소를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54년생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가 바람직 하니라. 66년생 잔손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78년생 실속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95, 02
丑	49년생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면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기세다. 61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73년생 2관직으로 돌이켜 보아야 할 때다. 85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9, 91	43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판세이다. 55년생 평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임에 편하다. 67년생 제사 덕분 이 이익을 먹는 격이로다. 79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9, 37
寅	50년생 열정을 쏟은 가운데 결실이 보이리라. 62년생 강하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74년생 지금은 불리하니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86년생 긴요한 불 일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41, 36	44년생 상황이 발생하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56년생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68년생 지난날의 부실함을 만회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80년생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51, 34
卯	51년생 행운을 전해주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리라. 63년생 옛 것으로부터 고통이 따를 수다. 75년생 압박하였으니 확실한 준비 태세를 취해야겠다. 87년생 평소 애용하던 곳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4, 86	45년생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7년생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희망한 미래를 연다. 69년생 가치관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자극이 보인다. 81년생 성과는 미미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행운의 숫자 : 70, 45
辰	40년생 눈이 어두워진 이치로다. 52년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64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76년생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8년생 충분한 성과를 거둔다. 행운의 숫자 : 96, 67	46년생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펼쳐라. 58년생 과신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니라. 70년생 흠어져 있는 것은 한데 모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82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68
巳	41년생 그저 언다시 할 것이다. 53년생 전적인 신뢰는 소모적인 결과를 부른다. 65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77년생 회구한다면 용기를 갖고 이해야 한다. 89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64, 30	47년생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라. 59년생 지난날에 비추어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71년생 기색이 보이면 즉시 조치하라. 83년생 상대의 배려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2, 54